

 기획재정부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10.15.(금)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제통화팀장 박민주(044-215-4840)	담당자	이동훈 사무관(ldh5758@korea.kr) 지윤서 연구원(cys12@korea.kr)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장 조현진(044-215-4830)	담당자	박수민 사무관(sumin@korea.kr)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및 엘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면담 실시

- IMFC에서 ①저소득국 지원강화, ②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③그린·디지털 구조개혁 등 IMF의 3가지 역할 강조 -

1.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IMF 총회(Board of Governors)에 IMF 정책방향, 전략 등을 제시하는 핵심 자문기구로서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

< 회의 개요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0.14(목) 9:00~11:00 워싱턴 D.C.(현지시간)에서 스웨덴 재무장관(막달리나 앤더슨)과 IMF 총재(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주재로 개최(대면·화상)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총 15개 국가들로 구성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 교대 수임, '20.11-'22.10까지 한국이 이사 수임)

- 금번 회의에는 美·英·日·中·佛 등 IMF 이사국 재무 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EU 집행 위원회·세계무역기구(WTO)·국제노동위원회(IL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여,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20개국 대면 참여(중국, 말레이시아, 알제리, UAE 등 4개국 화상참여)

- IMF 총재가 제시한 글로벌 정책의제(Global Policy Agenda*)를 바탕으로 세계경제 동향 및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IMF 총재의 세계경제동향·평가와 정책대응방향 및 IMF 역할

< IMFC 주요 합의 내용 >

- (세계경제) 세계경제 회복세는 여전하나, 국가간 백신공급과 정책지원 차이로 인해 불균등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21년 IMF 성장전망(% '21.7월 → 10월) : (세계) 6.0 → 5.9 (선진) 5.6 → 5.2 (신흥) 6.3 → 6.4

-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 변화,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정책대응) 평등한 백신공급(vaccinate), 탄력적인 정책조정(calibrate), 구조전환 가속화(accelerate)가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 팬데믹 확산방지 및 불균등 완화를 위해 백신공급을 촉진 하는 다자간 태스크포스(Multilateral Leaders Task Force) 등을 통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1년말까지 각국 인구의 40%, '22년 중순까지 70% 접종 목표

- 각국의 정책여력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정책조정을 추진하되 보건·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기재정운용계획 마련에 합의하였다.
 -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치를 벗어나는 경우 적절하게 (appropriately) 대응할 것을 합의하며, 국가간 부정적 파급효과 완화를 위해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 구조전환을 위해 재정·시장기제·규제 등 정책조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IMF 역할) 팬데믹 대응 및 구조전환을 위해 IMF의 감시 활동과 역량개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특히 거시금융 분석 등 IMF의 감시활동(surveillance) 강화를 요청하며 IPF* 등을 고려한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 공식입장(IV**) 재검토를 지지하였다.
 - * Integrated Policy Framework : 위험요인과 각 국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도출하는 분석 기법
 - **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12년) : 기본적으로 전통적 거시정책(재정·통화·환율)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되, 특정 여건 하에서 자본이동 관리조치도 사용 가능함을 제시
 - 또한 SDR을 활용하기 위해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재원 확충, IMF 內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 및 개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도 합의하였다.
 - * Poverty Reduction & Growth Trust: 저소득국 빈곤완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출(현재 무이자)
 -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 기후변화대응 등 목적의 장기저리 대출
 - 끝으로 기후변화·디지털화·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IMF의 거시금융리스크 및 거시경제영향 분석·연구를 환영하였다.

< 홍남기 부총리 발언 주요내용 >

□ 홍 부총리는 미국·중국·브라질에 이어 4번째로 발언하며, ①백신부족에 따른 저소득국 회복지원과 ②공급망 교란에 따른 선진국 성장세 둔화 이중고(double whammy)를 지적하며 위기극복 및 미래대비를 위한 IMF의 3가지 역할을 제시하였다.

① 첫째,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저소득국 지원을 강조하였다.

- 저소득국에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재원확충을 환영하였다.
- 아울러 기후대응을 포함한 저소득국의 구조개혁 역량강화를 위해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을 지지하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였다.

② 둘째,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각국 여건에 맞는 IMF 정책권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경제·금융 환경 및 시장흐름 급변으로 정책 대응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정책자문 요구가 증대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특히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전통적인 거시정책 외에 거시건전성조치* 등을 고려하는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 공식입장(IV)을 기대하고, IPF 논의 등을 포함한 탄력적인 정책권고를 요청하였다.

* Macro-Prudential Measures: 시스템 리스크 완화 조치, 상시 활용가능(LTV, DTI 등)
Capital Flow Management: 급격한 자본유출 완화 조치, 일시적으로만 사용
MPM/CFMs: 양자의 성격 모두 보유, 제한적 사용 인정(선물환포지션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③ 셋째, 회원국의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전환을 IMF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코로나 위기로 기후문제, 디지털 격차 대응의 시급성이 국가 간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부각됨을 언급하였다.
- 또한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거시 금융리스크 분석 등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평가 및 대응 >

- 금번 연차총회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세계경제 영향과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 특히, 6,500억불의 SDR 일반배분(8.23) 후 개최되는 첫 총회로서 SDR 활용을 위한 PRGT 재원확충, RST 신설 및 구체화 등에 대해 회원국의 많은 요청이 있었다.
- 우리나라는 공동성명서에 글로벌 정책대응 방향과 IMF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 IPF를 고려한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 공식입장(IV) 재검토 기대^①, RST의 대외준비자산 지위 인정^②과
 - ① We look forward to the review of the IMF's Institutional View on capital flows, informed by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among others.
 - ② The RST should preserve the reserve asset characteristics of the SDRs.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기재정운용계획 구축^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 활용^④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 ③ preser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cluding, where applicable, by bolstering medium-term fiscal frameworks.
 - ④ we will utilize policy mixes based on all effective tools, ranging from fiscal, market, and regulatory actions, including efficient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 정부는 SDR 활용의 일환으로 PRGT 대출재원 4.5억SDR (약 6.4억불) 공여 및 RST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공조 등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첨부] IMFC 공동성명서 원문

2. 엘런 미국 재무부 장관 양자면담 실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4.(목), 10:45~11:15,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엘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금번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지난 7월 제3차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계기 양자면담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만남**으로,

* 7.9~10, 이탈리아 베니스

* (미측 배석자) 윌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부장관, 디뎀 니산치(Didem Nisanci) 비서실장, 데이빗 립톤(David Lipton) 자문관 등

○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 대응, 저소득국 지원, 디지털세, 글로벌 공급망 및 對이란 정책 등 G20 현안 및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① (기후변화대응) 홍 부총리는 10월 말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11월 COP26 계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추진 등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국이자 개도국 그룹 이사국으로서 GCF 역량 강화 및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했다.

- 엘런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신흥국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한국과 GCF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② (팬데믹 대응) 양국 장관은 기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관련 재원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 보건·재무장관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마련 및 개도국 보건/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원 현황 검토를 토대로 신규펀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③ (저소득국 지원) 양측은 취약국 지원을 위한 PRGT 규모 확대*, IMF내 신설 논의 중인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한국은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대출재원에 4.5억SDR 공여 예정

④ (디지털세) 홍 부총리는 지난주(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Inclusive Framework meeting)에서 국제조세 개혁안이 발표된 것을 환영했다.

- 또한, 매출 귀속기준과 세이프하버 등 잔여 주요쟁점 관련하여 향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제안한 바,
- 엘런 장관은 합의 도출을 위한 한국측 협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향후 후속조치 위한 실무논의시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⑤ (글로벌 공급망)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적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 이와 관련, 최근 美정부의 반도체 기업들 대상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 또한,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을 통해 구축된 양국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⑥ (對이란 정책공조) 한국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Communiqué of the Forty-Fourth Meeting of the IMFC

Chaired by Ms. Magdalena Andersson, Minister for Finance of Swede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continues. But divergences between economies persist, reflecting stark differences in vaccine access and policy support. The emergence of virus variants has increased uncertainty, and risks to the recovery are tilted to the downside. The crisis is exacerbating poverty and inequalities, while the climate change and other shared challenges are becoming more pressing and require our urgent attention.

Stro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mmediate action are needed to expedite universal vaccination to stem the spread of the pandemic, limit divergences, and support an inclusive recovery everywhere. In this regard, we thank the Multilateral Leaders Task Force for its efforts and encourage it to work to accelerate access to and on-the-ground delivery of COVID-19 tools. To help advance toward the global goals of vaccinating at least 40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all countries by the end of 2021 and 70 percent by mid-2022, we will take steps to help boost the supply of vaccines and essential medical products and inpu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move relevant supply and financing constraints.

Against a complex environment, we will carefully calibrate our domestic policies to the evolving pandemic and available policy space. We will continue to prioritize health spending and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hile shifting focus, as appropriate, from crisis response to promoting growth and preser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cluding, where applicable, by bolstering medium-term fiscal frameworks. Central banks are monitoring price dynamics closely and can look through inflation pressures that are transitory. They will act appropriately if risks of inflation expectations de-anchoring become concrete. Clear communication of policy stances can help limit negative cross-country spillovers. We will continue to monitor and, as necessary, tackle financial vulnerabilities and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including through targeted macroprudential policies. We are also taking comprehensive action to extend financial assistance to countries in need, while supporting countries' efforts to restore debt sustainability and strengthening debt transparency practices by both debtors and creditors, public and private.

We will work together to accelerate transformational reforms to help build a more resilient and sustainable global economy. We look forward to the outcomes of COP26 and commit strongly to further accelerate climate action in line with the Par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country specific factors. In this context, we will utilize policy mixes based on all effective tools, ranging from fiscal, market, and regulatory actions, including efficient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e will also collaborate to unlock the potential of the digital economy aiming at benefits reaching all countries, while managing associated risks. We will implement a more robust international tax architecture. We reaffirm our commitments on exchange rates, excessive global imbalances, and governance, and our statement on the rules-based trading system, as made in April 2021.

We welcome the Managing Director's Global Policy Agenda.

We welcome the IMF's continued support to members to achieve a sustained recovery from the pandemic and address other challenges through cutting-edge, tailor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surveillance, and targeted capacity development. We support the continued refinement of surveillance activities, including by better integrating risks and uncertainties, improving forecasting and monitoring frameworks, deepening the Fund's engagement on macro-financial issues, and working on data provision and standards. We look forward to the review of the IMF's Institutional View on capital flows, informed by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among others. We also support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F's engagement with vulnerable members, including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We welcome the historic SDR allocation. We support the IMF's efforts to seek options for voluntary channeling of SDRs from members with strong external positions, according to their domestic processes, to the benefit of low-income and vulnerable middle-income countries. We commit to significantly scaling up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 while preserving its long-term financial soundness. We welcome new pledges to the PRGT received so far and call for broader participation from members for further loan and subsidy contributions. We support establishing a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RST) at the IMF, to provide affordable long-term financing to support countries undertaking macro-critical reforms to reduce risks to prospective balance of payment stability, including those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The RST should preserve the reserve asset characteristics of the SDRs. We call upon the IMF to develop and implement the RST and collaborate closely with the World Bank in this process, and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in exploring viable options for channeling SDRs through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e call for additional IMF members to sign voluntary SDR trading arrangements to enhance market capacity.

We welcome the IMF's continued support to members experiencing balance of payments needs, increasingly through upper-credit tranche arrangements. We welcome the G20's commitment to step up efforts to implement the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 which is also agreed by the Paris Club, in a timely, orderly, and coordinated manner, jointly supported by the IMF and the World Bank, as well as the IMF's broad agenda on debt sustainability, transparency, and restructuring. We support the IMF in securing donor contributions to the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 to provide debt service relief for COVID-19 and future shocks. We thank the IMF for its update on the surcharge policy and look forward to further related analysis at the IMF Executive Board in the context of the interim review of precautionary balances.

We ask the IMF to help member countries achieve a durable and inclusive structural transformation. We highlight the IMF's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members' diverse needs for guidance on th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ssues and on effective policy responses. We support the IMF stepping up its work—in line with its mandate—to identify and manage macro-financial risks and the macro-critical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digitalization including digital money, fragility, and inequality, while ensuring continued effective collaboration with partners. We ask the Executive Board to consider the appropriate budget resources to ensure that the IMF has the staff and skills required to carry out its mandate. We support ongoing modernization projects and call for further progress on diversity.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 strong, quota-based, and adequately resourced IMF at the center of the global financial safety net. We remain committed to revisiting the adequacy of quotas and will continue the process of IMF governance reform under the 16th General Review of Quotas, including a new quota formula as a guide, by December 15, 2023. We welcome the first progress report to the Board of Governors and look forward to further progress by the time of our next meeting.

We welcome the Statement by the IMF Executive Board on Its Review on the Investigation of the World Bank's Doing Business 2018 Report.

Our next meeting is expected to be held on April 21, 2022.